



2013/09/24

은행업

|은행/카드| **황석규** 3771-9626
hwangsk@iprovest.com

우리금융민영화: 지방은행 예비입찰 경쟁을 본다

- 경남은행 예비입찰 4곳, 광주은행 예비입찰 7곳 참여
- 최고가 입찰 원칙 고수될 것으로 예상. 지역정서를 감안한 정치적 변수는 일부 영향을 주는데 그칠 전망
- 우리금융 민영화 예정대로 순항 중
- 우리금융 민영화 이슈는 최근 은행주 상승의 추가적 보너스
- 은행주 top pick: BS금융, KB금융

**경남은행 예비입찰 4곳
광주은행 예비입찰 7곳
참여**

지방은행 예비입찰이 23일 마감되었다. 경남은행 예비입찰에는 BS금융, DGB금융, 기업은행,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등 4곳이, 광주은행 예비입찰에는 신한지주, JB금융, DGB금융, BS금융, 광주·전남상공인연합, 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7곳이 참여했다. 이후 일정은 실사와 본 입찰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2013년말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가 입찰 원칙 고수될
것으로 예상**

경제지에 따르면 공자위는 지방은행 매각에 있어서 기존의 원칙인 ‘최고가 입찰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금동원력이 우위에 있는 곳이 유력한 인수후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사회 기여도 등도 평가배점에 일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예정대로
순항 중**

이번 지방은행 예비입찰 경쟁률을 감안할 때 우리금융 민영화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최종 인수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고가 입찰 원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정서를 감안한 정치적 변수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민영화 이슈는
최근 은행주 상승의 추가적
보너스**

최근 은행주는 미국 양적완화 유지 결정 등으로 원화강세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이슈는 이러한 은행주에 추가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종적으로 인수에 성공한 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가운데에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수가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당사가 예상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수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된다.

아울러 인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은행주 top pick: BS, KB

당사 은행주 Top pick은 BS금융과 KB금융이다.

■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 향후 6개월 기준, 2008.7.1일 Trading Buy 등급 추가

적극매수(Strong 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30% 이상

Trading Buy: KOSPI 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매도(Sell):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

매수(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30% 이내

보유(Hold):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